

기후위기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회교리 회칙, 「찬미받으소서」(2015)와 파리 기후 협약 *Paris agreement*(2015)이 이루어진지 이제 햇수로 8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 회칙과 파리 기후 협약은 모르더라도, 최근에 각종 뉴스들이나 방송들을 통해서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와 한반도와 관련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현상에 대한 뉴스와 기후변화특집 방송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에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에도 우리는 크게 경각심을 가지거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2023년 11월 한 때,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06°C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2명의 과학자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이 바이오사이언스 *BioScience*(2023, 73)라는 국제저널에 <2023년 기후 현황 보고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을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지구의 '행성생명신호' 35개 항목 중 20개 지표가 극한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하며, "그 시간이 왔고, 지구가 불안정한 위험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기상과학자들의 보고서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위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이 경고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0년 54일간의 장마로 한반도의 남부, 특히 하동지역의 엄청난 비피해를 기억하십니까? 또 2022년에는 서울에 80년 만의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서울의 강남이 잠겼고 이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3년 충남 오송지역에는 4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 붕괴로 인해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 되어 안타까운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호우가 있기 이전 전남지역은 50년만의 227.3일 간의 기상가뭄(6월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일정량 이상 적은 상황)으로 인해 물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년 기상이변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한반도 주변 해수면 연평균 상승 속도는 3.03mm이지만, 최근 10년으로 한정하면 상승속도가 이전에 비해 10% 빨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와 동해는 이 상승속도가 더 빠릅니다. 조금 더 체감이 되도록 예를 들어보자면,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용머리 해안의 2017년 탐방로 개방일은 74일이었지만, 2021년에는 개방일이 6일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즉, 일대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보고서와 실제 기상이변 등은 우리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지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모두가 기후변화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구라는 행성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이미 여러 차례 기후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대멸종도 겪었기에 이번의 기후변화도 그와 같은 것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재난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길지도, 혹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회적인 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 관찰을 통해 기후변화가 인류의 위기를 야기시킬 것이라 경고했고, 최근에는 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류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야기시킨 기후변화이기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면, 이 기후위기를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기에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은 현재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C이하로 방어하자고 파리 기후 협약(2015)에서 합의하였고, 2018년에는 다시 1.5°C이하로 상승폭을 줄여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회의 IPCC(인천, 2018)의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한 지 꽤 시간이 흘렀으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이에 대해 변명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결정의 우선순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과 정책적 결정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현재 암울한 전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의 한계점으로 보고 있는 지구평균온도 1.5°C 상승의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으며,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 급박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의 안일한 대응 자세는 문득 예수님께서 표징을 요구한 이들에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는 저녁때가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껏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마태 16,2-3) 하지만 우리는 현재 그 하늘의 징조도 분별하고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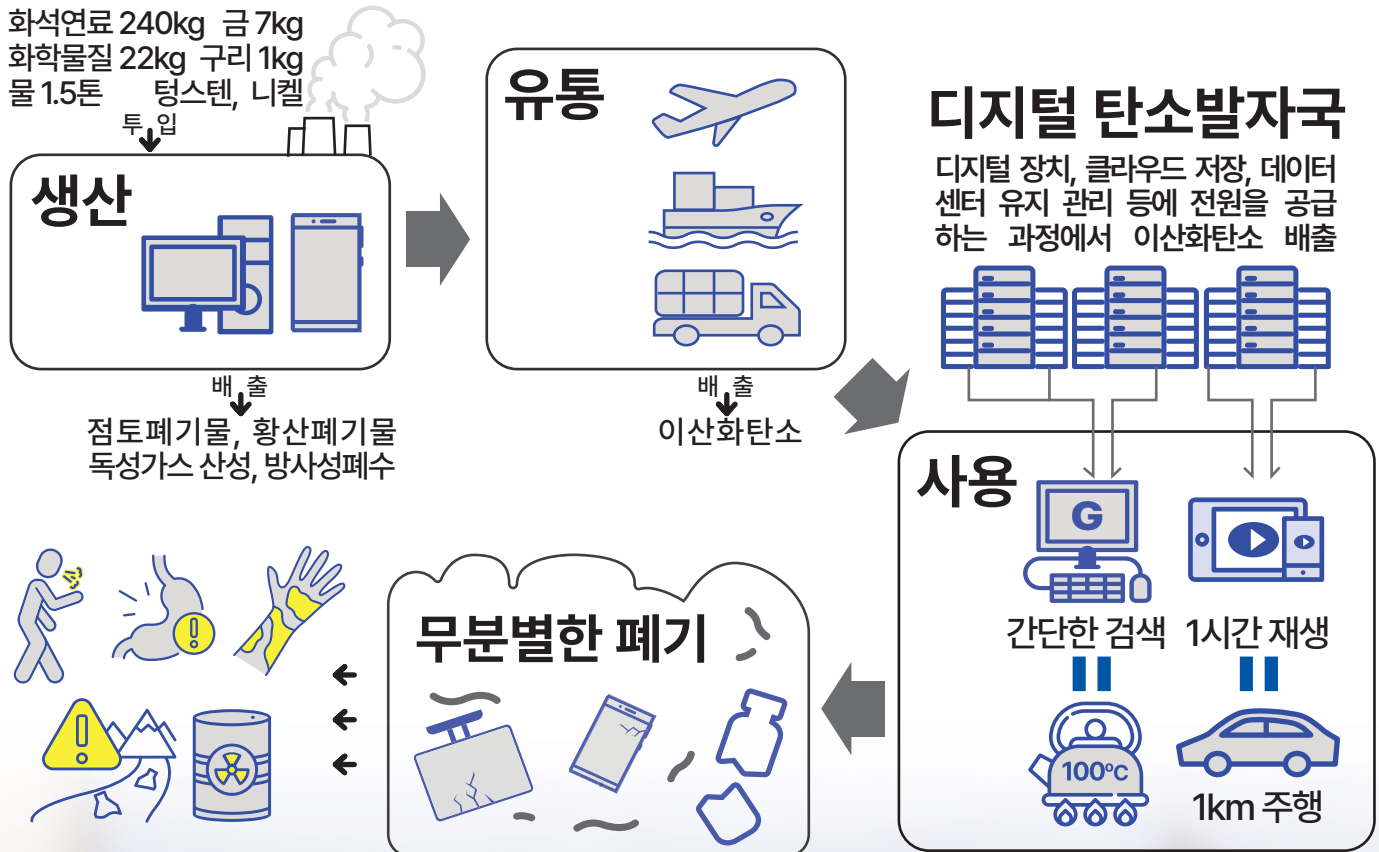
샌디에고 *Frans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실천사항 1 아껴쓰기_Reducer

'종이 대신 전자 기기'의 불편한 진실

전자 기기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함께! 기도해요 :)

이번 주는 전자기기 사용을 잠시 멈추고,
 촛불을 켜놓고,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가정을 위한 기도, 묵주기도, 자유기도 등)



함께! 놀아요 :)

온라인 게임 대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노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끝까지 살아남기"

1. 재료: 신문지(이면지, 전단지 등)
2. 방법: 팀을 나눕니다.

팀별로 펼친 신문지 위에 모두 올라섭니다.
 5초간 버팁니다.
 무승부 시, 반으로 접어 나가며 제일 적은
 면적에서 버틴 팀이 승리합니다.



EBS

다큐프라임
 여섯번째대결종
 1부 재앙의 서막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세요